

여성시문학사 서술 방법론 고찰

이경수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목차

- 1 여성시문학사 서술의 필요성
- 2 여성시문학사 서술에 요구되는 관점
- 3 여성시문학사 서술 방법론: 정전 형성의 가치 척도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재검토
- 4 시대 구분의 문제
- 5 결론

이 논문에서는 젠더시문학사 서술을 위한 과도기의 작업으로서 여성시문학사의 서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여성시문학사 서술에서 요구되는 관점을 살펴본 후 서술 방법론에 대해 제안하고, 여성시문학사 시대 구분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여성시문학사 서술에서 요구되는 관점으로 교차성 페미니즘의 관점을 전유해 여성시에 나타난 ‘행위주체성’을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여성시에 대한 새로운 독법과 새로운 여성시문학사의 구축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정전 형성의 가치 척도로 논의되어 온 형식적·미적 척도, 내용의 척도, 연관적 척도, 영향과 관련된 척도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재검토함으로써 여성시문학사 서술 방법론으로 활용하고자 제안했다. 네 가지 척도를 활용한 여성시문학사 서술방법론에 따라 여성시문학사의 시기를 1기(1910~1920년대) 근대적 여성 주체의 선언과 좌절의 시기, 2기(1930~1960년대) 국가주의 페미니즘과 여성성의 축소 시기, 3기(1970~80년대) 글쓰기 주체로서 여성 정체성의 확립과 여성주의 미학의 발견 시기, 4기(1990년대) 여성적 글쓰기의 실험과 도전 시기, 5기(2000~2010년대) 젠더적 인식의 확산과 다양한 목소리의 출현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국문핵심어: 여성시문학사, 젠더시문학사, 행위주체성, 서술 관점, 서술 방법론, 정전 형성, 가치 척도, 시대 구분

1 여성시문학사 서술의 필요성

여성문학사 서술의 필요성이 제기되던 시대와 ‘근대—민족’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문학사 무용론이 제기된 시대를 지나, 오늘의 시점에서 여성시문학사 서술의 필요성을 다시 제기한다고 했을 때 몇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질문들이 있다. 먼저 ‘여성’시문학사가 왜 필요한지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아울러 여성‘시’문학사 서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그 동안의 문학사가 남성—근대—민족 담론 중심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남성’시문학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시문학사 서술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자칫 의도와는 달리 여성시문학사를 계토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에서 이 논문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의 문학사 서술에 관한 연구들이 제안하듯이 이 논문 또한 궁극적으로는 ‘젠더시문학사’를 지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¹ 다만, 현대시 분야의 경우 제대로 된 여성시문학사가 단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다는 점에서 과도기로서의 여성시문학사 서술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² 이를 위해서는 여성 시인과 작품의 발굴이 선행되어야겠지만 남성—근대—민족 중심의 문학사만이 존재했던 지금까지의 시문학사를 염두에 둘 때 여성시문학사를 건너뛴 젠더시문학사의 서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³

-
- 1 소영현은 “‘여성’문학사 서술 기획”이 “문학사에 젠더를 기입하는 일의 일환”임을 분명히 하며, “여성 작가의 발굴이나 여성성, 여성적인 것의 발굴 작업의 의미”를 넘어 “문학사 인식의 시각적 전환의 거점을 마련하는 일이자 문학사 서술의 가능성에 대한 틀을 새롭게 짜는 것까지를 포괄”함을 논구한 바 있다. (소영현, 「문학사의 젠더」, 민족문학사연구소 편, 『문학사를 다시 생각한다』, 소명출판, 2018, 192쪽.) 이경하도 여성문학사를 서술하는 문제는 “자국문학사를 다시 쓰는 일”인데, “단지 알려지지 않았던 여성작가와 작품의 존재를 자국문학사의 빈 틈새에 끼워 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국문학사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틀을 새롭게 짜”야 함을 역설하며 이를 조심스럽게 ‘젠더문학사’로 명명하였다. (이경하, 「여성문학사 서술의 필요성」, 민족문학사연구소 편, 『문학사를 다시 생각한다』, 소명출판, 2018, 239-241쪽.) 소영현과 이경하의 논의에서 거듭 천명된 ‘젠더문학사’ 서술의 필요성에 이 논문 역시 공감하고 동의한다. 다만 ‘시문학사’의 경우, 일반적인 문학사에서보다 여성 시인의 시가 더욱 철저하게 배제되어 왔음을 기억한다면 젠더시문학사 서술에 앞서 여성 시인들과 그들의 시작품에 대한 발굴과 연구, 여성시의 정전을 구축하는 문제, 여성시를 시문학사에 기입할 수 있는 방법론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 과도기로서의 여성시문학사 서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 2 개별 논문으로 여성시문학사를 개관해 보거나 특정 시기의 여성시문학사를 서술한 논문들은 일부 있었다. 김현자·이은정, 「한국현대여성문학사—시」, 『한국시학연구』 제5호, 한국시학회, 2001.10, 65-91쪽; 정영자, 「1960년대 한국여성시문학사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12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3.6, 33-69쪽; 정영자, 「1970년대 한국여성시문학사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17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5.8, 189-220쪽.
 - 3 가장 최근에 쓰인 이승하 외, 『한국 현대시문학사』(개정증보판), 소명출판, 2019의 경우만 예로 들어 보아도 10년 단위로 2000년대 시까지 대상으로 한 시문학사에서 여성 시인의 시가 의미 있게 다루어진 시기는 1980년대와 1990년대, 2000년대 정도이다. 그 앞 시기의

더불어 한 가지 더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여성 ‘시’문학사의 서술에 관한 문제이다. 여성문학사라는 특수성 외에도 ‘시’라는 장르를 중심으로 한 문학사, 다시 말해 개별 장르 문학사라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여성’시문학사가 제대로 쓰인 적이 없었다고 앞서 말했지만, ‘시’문학사의 경우는 어떠한지 살펴보면 이 또한 온전한 서술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시(문학)사’라는 이름으로 많은 시문학사가 출간되었지만 대부분 여러 명의 필자가 특정 시기를 맡아 서술한 원고를 묶어놓은 성격의 문학사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한 명의 필자가 문학사적 관점에 의해 관장하는 온전한 시문학사가 우리에게 있었는지 묻는다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시문학사가 대개 10년 단위로 관행적으로 시기를 나누어 쓰이다 보니 기존 시문학사의 상당수가 사실상 전체를 일관된 관점으로 통괄하지 못하고 여러 명의 필자가 특정 시기를 담당해 서술한 시문학사의 합체에 가까운 것이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문학사 서술의 관점이나 시기 구분 등을 집단 지성을 발휘한 토론의 과정을 통해 공유할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그런 과정을 밟아 각 시기를 집필하고 상호 토론의 시간을 통해 수정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쳐 체계화한 시문학사를 찾기란 쉽지 않다. 정한모의 『한국현대시문학사』와 김용직의 『한국근대시사』와 『한국현대시사』, 유중호의 『한국근대시사』 정도가 한 명의 필자가 문학사가로서의 일관된 관점을 고수하며 시문학사 전체를 기술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최동호의 『한국현대시사의 감각』 역시 시문학사 서술을 염두에 두고 쓰인 책이지만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엄밀하게 문학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여성’시문학사는 말할 것도 없고 ‘시’문학사조차 제대로 서술된 적이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⁴

경우, 기존의 문학사에서 다루어 왔던 모운숙, 노천명, 김남조, 홍윤숙, 강은교 정도가 언급되고 있을 뿐 근대 초기의 여성 시인인 김명순, 나혜석, 김일엽의 시조차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시기 필자의 성향에 따라 아예 여성 시인의 시가 언급되지 않은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4 정한모의 『한국현대시문학사』(일지사, 1974)는 근대시의 배경으로 옛노래와 이조기의 시, 18세기 사회를 살펴본 후 주요한, 김억이 주로 활동한 1920년대 초반까지의 시사를 다루고 있으며, 유중호의 『한국근대시사』(민음사, 2011)도 1920~1945년까지의 시사를 ‘근대시

그러므로 특정 장르의 문학사, 그 중에서도 시문학사이면서 동시에 ‘여성’시문학사를 서술하고자 할 때 몇 가지 질문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 여성시문학사는 기존의 시문학사와 무엇이, 어떻게 다르며, 달라야 하는가? 여성시문학사란 여성이 서술 주체가 되는 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성의 관점으로 시문학사를 다시 기술하는 것인가?⁵ 우리의 경우 문학사 서술이 근대 민족국가의 수립과 맞물려 있는 과제였는데 그렇다면 ‘여성시문학사’를 서술한다고 했을 때에도 그러한 문학사 서술의 관행을 따라야 하는가? 시대 현실과의 관련을 고려한 문학과 역사의 결합으로서의 문학사 서술, 특히 근대 민족 문학사의 일환으로서 여성시문학사를 서술한다고 상정했을 때 결과적으로 기존 문학사의 관점에 여성시인들의 시를 끼워 맞추는 식의 여성시문학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전혀 새로운 여성시문학사의 서술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여성시문학사에 대한 새로운 상상은 가능할 것인가?

이 논문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질문들을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질문에 스스로를 맞세우며 오늘의 시점에서 요구되는 여성시문학사를 상상해 보는 일이야말로 이 논문이 맞닥뜨린 과제이다. 여성시문학사 서술의 관점과 방법론, 그리고 문학사 서술에서 빠질 수 없는 시대 구분의 문제까지 살펴봄으로써 이 논문에서는 새롭게 쓰여야 할 여성시문학사의 가능성을 논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여성시문학사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실험해 보는 일이기도 하다.

2 여성시문학사 서술에 요구되는 관점

여성시문학사의 서술 가능성을 논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복수의

사’로 포괄해 다루고 있다. 『한국근대시사』에서 여성 시인으로는 유일하게 노천명이 언급되고 있다.(유종호, 『한국근대시사』, 민음사, 2011, 231, 257쪽.) 정한모와 유종호의 시사는 각각 1920년대, 1920~1945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 5 여성 젠더의 관점으로 시문학사를 다시 서술하는 작업에는 서술 주체가 여성인 경우만 포함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젠더시문학사 서술의 전 단계로 여성시문학사의 서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논문의 관점이다.

문학사⁶라는 관점을 취하고자 한다. 문학사는 시대가 달라지면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쓰여야 한다는 데 많은 문학사가들이 동의해 왔지만 그럼에도 한국 현대 문학사는 기본적으로 근대—민족 문학사의 서술을 추구해 왔고, 그것은 대부분 남성 시인/작가 중심의 문학사로 그 실체가 기술되어 오곤 했다. 이 논문에서는 많은 문학사의 서두에서 인용되어 온 ‘문학사는 늘 새롭게 쓰여야 한다’는 명제를 실질적으로 계승하고자 한다. 문학사가 새롭게 쓰일 수 있고 쓰여야 함을 인정한다면 단일한 문학사에 대한 상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라는 것도 어떤 관점에서 서 있느냐에 따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관점에서 시대의 요구를 읽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비슷한 시기에 쓰이는 문학사도 단일한 문학사가 아니라 복수의 문학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복수의 문학사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나면 ‘여성시문학사’ 서술의 필요성 또한 좀 더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한 관점에 굳건히 서 있는 문학사의 기술이 열릴 수 있다면, 기존의 주류 문학사의 서술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되었던 시인과 시작품들이 문학사에 호명되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문학사 서술에는 기본적으로 선택과 배제가 따를 수밖에 없다. 문학사에서 호명되는 주요 작품들에 대해 기존의 문학사는 대개 ‘빛나는 봉우리’라고 표현해 왔지만 그 빛나는 봉우리에서 유독 배제되어 왔던 시인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남성—근대—민족 문학 중심의 주류 시문학사에서 벗어나 그로부터 배제되어 온 시인과 시작품들을 새롭게 배치, 호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이 제안하는 ‘여성시문학사’ 서술의 관점이다. 젠더시문학사라고 했을 때 젠더적 관점에 의해 시문학사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여성시문학사의 서술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유독 더 보수적인 시 장르의 경우, 여성 시인과 시작품에 대한 발굴과 연구 역시 부족한 실정이라⁷ 이런 중간 과정을 생략한 젠더시문학사의 구축은 자칫 이름만 바꾼 기존 시문학사의 재배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그것이 과도기적인 작업임을 인정하면서도 여성시문학사 서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여성’시문학사와 여성‘시’문학사라는 두 가지 제약을 안고 가야 하는 ‘여성시문학사’는

6 소영현, 앞의 글, 215쪽.

복수의 문학사이자 기존의 시문학사에 대한 대항 문학사로서의 가능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여성이 창작 주체로 참여한 시와 여성 시인이 여성시문학사 서술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는 기존의 시문학사에서 배제되어 온 작품들을 복원하는 의미를 함께 지닌다.

그러나 한국 현대 시사를 살펴보면 단지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주체가 창작한 작품이라고 해서 여성시문학사 서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되어도 괜찮은지 의문이 드는 작품들이 눈에 띄는 것 또한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여성시문학사의 서술을 위한 기본 자료들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이 작품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고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여기서 여성시문학사 서술은 다시 한 번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여성시를 읽는 기준이나 방법론이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깨달음에 이르는 순간 우리의 절망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소설 연구의 흐름에서 여성문학사의 서술이 이런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결국 매체 연구로 나아가면서 문학사 기술의 대상을 확장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떠올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시대 현실과 좀 더 긴밀히 상호 작용하며 쓰인 소설과 달리 시라는 장르가 지닌 독자성 또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소설 연구의 흐름이 ‘문학’의 경계를 넘어 문화 연구로 나아가고 있는 현상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시 연구는 문화 연구나 담론 연구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존재해 왔음을 기억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개별 장르 문학사, 그 중에서도 시문학사로서의 여성시문학사의 서술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 논문에서는 전혀 새로운 여성시문학사의 서술을 위해서는 여성시를 읽는 방법론을 구축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⁸ 일찍이 산드라 길버트와 수전 구바는 『다락방의 미친 여자』에서 19세기 영미문학사를 여성문

7 기존의 시문학사에서 배제되어 온 백국희, 김오남, 장정심, 노영란, 조애실, 석계향, 강계순, 추은희, 차정미, 최명자, 정명자 등의 여성 시인을 여성시문학사에 어떻게 기입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심지어 초기의 시문학사에서는 김명순, 나혜석, 김일엽조차 언급되지 않았음을 기억할 필요도 있겠다. 이들 외에도 시문학사에 기입되지 못한 채 잊힌 여성 시인들이 여럿 있다. 이들에 대한 발굴과 복원, 이들의 작품에 대한 온당한 가치 평가 등이 선행될 때 새로운 여성시문학사의 서술이 가능해질 것이다.

학사의 관점에서 새롭게 기술하면서 의미심장한 논의를 펼친 바 있다. 보수적인 시 장르의 특성이 서정시를 창작하는 주체로서 여성을 인정하지 않아 왔고 이러한 영미문학사의 전통 속에서 여성 시인들이 인정받기는 쉽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이다.⁹ 우리의 경우, 서정시의 언어를 ‘여성적 어조’의 언어라고 지칭해 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정시 창작의 주체로서 여성 시인이 제대로 평가받고 인정받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¹⁰ ‘여류시’, ‘여류시인’이라는 말이 무반성적으로 쓰여 왔음은 물론이고,¹¹ 여성 시인의 시를 높이 평가하기 위해서도 다른 여성 시인들의 시를 폄하하는 수사학이 동원되어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¹² 한국 현대 시사에서는 1990년대가 유일하게 여성문학의 시대이자 여성시의 시대로 불려 왔다고 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2000년대에 들어서 자마자 여성문학을 게토화했다는 비판과 함께 ‘여성’을 두드러지게 앞세우는 것

-
- 8 리타 펠스키가 『페미니즘 이후의 문학』에서 독자, 저자, 플롯, 미학적 가치 등의 개념을 젠더적 관점에서 재검토한 예를 참조할 수 있다. (리타 펠스키, 이은경 역, 『페미니즘 이후의 문학』, 도서출판 여이연, 2010, 39쪽.) 이 논문에서는 시론의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도 젠더적 관점에서의 전격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 9 산드라 길버트·수전 구바, 박오복 역, 『다락방의 미친 여자』, 이후, 2009, 893-896쪽.
- 10 1세대 여성 시인 김명순, 나혜석, 김일엽의 시를 향해서는 문학작품으로서 미달한다는 평가를 공공연히 했으며 해방 전 시문학사에서 이름을 올린 여성 시인은 오랫동안 모윤숙, 노천명 정도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 11 1996년에 출간된 김해성, 『한국현대여류시사』에서도 ‘여류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여류시’에 대해 별다른 정의나 규정 없이 여성시와 동일한 의미로 ‘여류시’라는 용어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는 시기의 여성 시인들의 시를 망라하고 있는 시사라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를 지니지만 여성시인의 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김해성, 『한국현대여류시사』, 대광문화사, 1996, 3-4쪽.
- 12 강은교의 첫 시집 『허무집』에 붙은 발문 「虛無의 註」에서 고은은 강은교의 첫 시집에 대한 찬사를 위해 다른 여성 시인들의 시를 싸잡아서 폄하하는 전형적인 수사학을 선보인다. “그는 우리들과 함께 시를 쓸 수 있는 유일한 여자일지도 모른다. 그의 前時代에 盧天命을 설정하는 것조차 별도의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의 巫俗과 같은 고립은 詩壇의 「모럴」과 상관없이 隔絶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은, 「虛無의 註」, 강은교, 『허무집』, 70년대동인회, 1971, 118쪽.) ‘우리들’이 공공연히 남성 시인들을 가리키며 여성 시인들을 배제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을 지우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이때 ‘여성시’라는 용어는 촌스럽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의 대명사로 취급되어 여성 시인 스스로 ‘여성’ 시인으로 불리기를 거부하는 데에 이르게 된다.

여성시문학사 서술의 관점을 마련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한국현대문학사로 김윤식·김현의 『한국문학사』와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 5에서 여성시가 어떻게 서술되었는지 간략히 검토하고, 개별 시문학사로 정한모의 『한국현대시문학사』와 김용직의 『한국근대시사』·『한국현대시사』, 그리고 유중호의 『한국근대시사』에서 여성시에 대한 서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 밖에 여러 명의 필자가 특정 시기를 나누어 맡아 기술한 오세영 외 『한국현대시사』와 이승하 외 『한국 현대시문학사』에서 여성시에 대한 서술과 비중이 어떠한지 검토해 볼 것이다. 아울러 본격적인 여성시문학사라고 볼 수는 없지만 김해성의 『한국현대여류시사』와 김현자의 논문 「한국현대여성문학사—시」에서 여성 시사가 어떻게 기술되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김윤식·김현의 『한국문학사』는 ‘방법론 비판’이라는 장을 제일 앞에 두고 시대 구분론과 한국문학의 인식과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 ‘문학사는 실체가 아니라 형태이다.’라는 유명한 문장으로 과거의 문학적 집적물을 문학적 실체가 아니라, 관계를 이루려는 기호로, 다시 말해 부분과 부분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의미망으로 읽어야 함을 주창한바 있다.¹³ 기술된 현대문학사 중 문학사 기술방법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장 공들여 쓴 문학사라고 할 수 있는 『한국문학사』에서 근대문학의 기점을 영·정조 시대로 끌어올려 시대 구분을 하고 있는 점 또한 눈에 띈다. 1780~1880년에 이르는 영·정조 시대를 ‘근대의식의 성장’ 시대, 1880년 개항에서 1919년 3·1운동에 이르는 시대를 계몽주의와 민족주의의 시대로, 1919~1945년 해방에 이르는 시대를 ‘개인과 민족의 발견’ 시대로, 1945~1960년 4·19에 이르는 시대를 ‘민족의 재편성과 국가의 발견’ 시대로 구분해서 살펴보고 있다. 각 시대별로 시, 소설, 희곡 등의 장르에 대한 서술이 이루어지지만 『한국문학사』에서 언급된 시인 중 여성 시인은 없음을 확인할 수

13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8-11쪽.

있다.¹⁴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 5권에서는 근대문학을 “1919년 이후 오늘날까지의 문학”¹⁵으로 보고 근대문학 제1기를 1919년~1944년까지로 설정했다. ‘민족어문학 확립의 길’로 시민문학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근대문학을 규정한 조동일은 근대문학 1기의 문학을 다시 시대순으로 주제를 고려해 나누어, 시, 소설, 희곡, 비평의 장르에 따라 개별 문학사를 기술하는 형식을 취했다. 기본적으로는 근대 민족문학사의 관점을 취하고 있지만 시대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나 저항성 외에도 ‘운율’ 같은 시의 형식을 시사 기술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⁶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 5권에서도 여성 시인의 시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개정판인 4판에서 ‘내면의식을 추구한 시’라는 장에 ‘여성 시인의 작품 세계’라는 절을 별도로 두고 김명순, 나혜석, 김일엽을 비롯해 김오남, 주도윤, 모윤숙, 노천명을 언급하고 있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¹⁷ 특히 1세대 여성 시인인 김명순, 나혜석, 김일엽의 시는 각각 한 작품씩 직접 인용하고 있다는 점¹⁸, 김오남, 주도윤과 같이 시문학사에서 주목해 오지 않은 시인들도 비록 작품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언급하고 있다는 점¹⁹ 등이 눈에 띈다. 단독으로 집필한 한국현대문학사 중에서는 여성 시인들의 작품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문학사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정한모의 『한국현대시문학사』는 근대시의 배경으로 ‘핏속에 흘러 온 시’라는 절에서 ‘옛 노래 속의 시’와 ‘李朝期의 시’를 살펴보고, ‘배경으로서의 한국의 ‘근대’라는 절에서 18세기 한국의 엘리트들과 서양의 그림자, 위정척사와 민족의식, 식민지화 과정에서의 근대의식의 발로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런 배경과 전사를 바탕으로 근대시가 태동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새로운 시를 위한 태동’

14 부록으로 실린 ‘비평서지’에서만 ‘노천명’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위의 책, 355쪽.

15 조동일, 『한국문학통사』5, (4판) 지식산업사, 2005, 9쪽.

16 위의 책, 82-92쪽.

17 위의 책, 432-438쪽.

18 위의 책, 433-435쪽.

19 위의 책, 436쪽.

이라는 장에서는 저항기의 시가와 육당의 시가를 근대시의 태동을 알린 작품으로 언급하고 있다. ‘초기시단의 형성과 그 선구’라는 장은 『태서문예신보』의 시와 시론, ‘주요한의 시와 그 지향’, ‘역시집 『오뇌의 무도』와 안서 김억의 시’, ‘타고르의 본격적 도입’이라는 네 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한모의 『한국현대시문학사』의 본령은 사실상 이 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정한모의 시문학사는 안서 김억과 상아탑 황석우, 주요한 등이 한국 근대시의 초기 시단을 형성했음을 분명히 하면서 매체와 번역시까지 두루두루 살피는 균형 감각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균형 감각 안에 여성시의 설 자리는 없었다는 사실과 1920년대 초반에서 시사 기술이 멈췄다는 사실은 한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김용직의 『한국근대시사』와 『한국현대시사』는 각각 상하권, 1·2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국근대시사』에서는 먼저 서론에서 근대시사의 방법론을 성찰하고 근대시의 기점과 문학사의 형태화 이론으로 내재론의 의미를 살핀 후, 개화기 시가로부터 한국근대시사의 서술을 시작하고 있다. 개화가사, 창가, 신체시로부터 한국 근대시의 형성을 살핀 후 ‘본격 근대시의 등장과 전개’라는 장에서 『태서문예신보』의 출현과 주요한의 데뷔를 중요한 문학사적 사건으로 들고 있으며, 3·1운동, 창조파, 폐허파 등의 문예동인지를 의미 있게 살피고 있다. ‘근대시의 제2국면’으로 ‘『백조』시대’를 별도로 살피는 장을 거쳐 ‘시전문집단, 금성파의 등장’, ‘민요조 서정시의 형성과 전개’, ‘현실의 새 발견과 형이상의 차원’, ‘해외시 수용의 본론화와 그 양상’까지가 『한국근대시사』 상권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하권은 ‘1920년대 후반기 시 이해의 길’, ‘신경향파의 대두와 그 활동 양상’, ‘프로예맹의 발족과 그들의 활동’, ‘목적의식기 작품들의 성향과 한계’, ‘민족문화와의 등장과 그들의 활동’, ‘민족문화와의 자아 인식 시도와 그 의미’, ‘자생적 양식에 대한 촉수, 시조부흥운동’, ‘아나키즘의 갈래와 해외문화파’ 등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920년대까지의 한국근대시사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카프를 중심으로 한 프로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사라고 볼 수 있지만 여성시의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한국현대시사』에서는 “작품을 그 자체로 독립된 ‘자족적 존재’로 보”면서 또 “작품과 현상을 독립시켜서 보는 결과론이 아니라 여러 요인과의 상관관계 속

에서 살피려는 과정론”²⁰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 기본 관점임을 밝히면서 1930년대 시문학과와의 등장에서부터 현대시사를 시작하고 있다.²¹ 『한국현대시사』는 시문학과와의 등장과 그들의 활약, 주지주의계 모더니즘, 극렬 시학의 세계—이상론, 현실주의 시의 행방, 시인부락 시대, 후반기의 온건파 시인들, 『시원』과 30년대 시단, 신세대 시인들의 활동 양상, 문장파와 그 음역, 일제말 암흑기와 시단 등으로 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각론은 시인론의 성격을 지니는 글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시원』과 30년대 시단이라는 장의 3절에서 ‘두 여류시인, 모운숙과 노천명’을 별도의 절을 할애해 다루고 있는 것이 유일한 여성 시인에 대한 언급이라고 할 수 있다. 『시원』과 관련지어 모운숙과 노천명을 언급한 후 모운숙을 ‘외발형의 여류시’로, 노천명을 ‘사슴의 감성’으로 다루고 있다.²²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여류시’라는 용어가 별다른 비판 없이 수용되고 있음을 여기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유중호의 『한국근대시사』는 1920년부터 1945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시사로, “시에 대한 이해를 두텁게 하고” “문학사란 비평에 다름 아님을 실감시켜 주”며 “독자들이 즐기면서 통독할 수 있는” 문학사를 목표로 쓰였다.²³ ‘한국근대시사’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만 엄밀한 문학사의 기술방법을 따르고 있지는 않고, 필자도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한국 근대시의 평전을 염두에 둔”²⁴ 글쓰기에 가깝다. 유중호의 시사에서 유일하게 언급되고 있는 여성 시인은 노천명이다.²⁵ ‘그 전날 밤의 시인들’이라는 마지막 장의 ‘독보적인 시인들’이라는 절에서 노천명의 「장미」와 「아무도 모르게」 두 편의 시를 인용하며 “1950년대 이후 왕성해진 여성 시인들의 활동을 고려할 때 노천명은 그 기본 동력을 마련한 선구적인 시인으로 기억될 것”²⁶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20 김용직, 『한국현대시사』 1, 한국문연, 1996, 34쪽.

21 위의 책, 59쪽.

22 김용직, 『한국현대시사』 2, 한국문연, 1996, 266-299쪽.

23 유중호, 『한국근대시사』, 민음사, 2011, 5쪽.

24 위와 같음.

25 “여성 시인으로서 20세기 전반의 대표적 존재인 노천명”이라고 ‘홀로 선 시인들’이라는 장에서 언급하고 있다. 위의 책, 231쪽.

오세영 외 『한국현대시사』는 11명의 필자가 특정 시기를 맡아 집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한국현대시문학사이다. ‘한국 현대시의 성찰’이라는 총론을 오세영이 집필하고, 나머지 10명의 필자가 각 시기를 나누어 각론을 집필하였는데, 10년 단위의 시문학사 서술을 기계적으로 따르지 않고 나름의 기준으로 나누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명의 필자가 집필하기는 했으나 최소한의 합의 하에 쓰인 시문학사라고 볼 수 있겠다. 근대시의 형성기(1894년~1919년), 근대시의 전개(1919년~1931년), 현대시의 형성기(1931년~1945년), 해방기의 시(1945년~1950년), 전쟁기와 전후의 시(1950년~1961년), 민주화의 열망과 좌절(1961년~1972년), 산업화 시대의 시(1972년~1979년), 민중 혁명의 시기(1979년~1991년), 탈냉전의 시기(1991년~2000년), 세계화의 시기(2000년~)로 시기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가급적 10년 단위로 기계적으로 시기 구분을 하는 것을 피하고자 한 필자들의 의도가 엿보인다.²⁷ 11명의 필자 중 여성 필자는 김현자밖에 없지만, 탈냉전의 시기(1991년~2000년)와 세계화의 시기(2000년~)를 집필한 유성호와 맹문재는 비교적 균형 감각을 가지고 여성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름만 나열된 경우도 많지만 1990년대 이후의 여성 시인들은 이 시사에서 상당수 다루어진다.

이승하 외 『한국 현대시문학사』(수정증보판)에서는 191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는 한국 현대 시문학사를 10년 단위로 여러 명의 필자들이 나누어 기술하고 있는데 2000년대 시사까지 기술하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²⁸ 별도로 시사 기술방법론이 쓰여 있지는 않지만 「책머리에」에서 이 책의 기획 의도로 새로운 시문학사를 기술하고자 한 점, 젊은 필진들에 의한 참신한 시문학사를 기획한 점, 10년 단위로 시대 구분을 하되 1930~1945년까지와 1945~1950년까지의

26 위의 책, 269쪽.

27 오세영 외, 『한국현대시사』, 민음사, 2007.

28 사실상 『한국 현대시문학사』의 수정증보판이 출간된 시기가 2019년임을 감안하면, 2010년대 시사까지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2000년대 시사를 집필한 필자는 “2000년대 시의 중요한 특징들이 현재까지 이어진다는 판단 아래 2010년대의 시적 경향까지 포함해서 다루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경수, 「탈경계 시대 현대시의 모색과 도전」, 이승하 외, 『한국 현대시문학사』(수정증보판), 소명출판, 2019, 456쪽.

해방기는 예외적으로 시대 구분을 했다는 점, 필자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 용어와 문체의 완전한 통일을 피하지 않은 점 등을 밝히고 있다.²⁹ 1980년대 시문학사를 서술한 맹문재는 ‘여성시의 확대’라는 절에서 이 시기 여성시의 특징을 언급하였으며,³⁰ 1990년대의 시문학사를 서술한 고명철도 ‘여성시—남성 중심의 근대적 주체에 대한 모반’이라는 장에서 1990년대 여성 시인들의 시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었다.³¹ 2010년대까지 포괄해 2000년대 시사를 기술한 이경수는 신세대의 약진과 새로운 시적 주체의 출현, 탈국가적 상상력과 문학의 윤리에 대한 고민, 정치의 일상화와 정치적 상상력의 갱신으로 나누어 2000년대 시사를 서술하였는데, 여성 시인이나 여성시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김민정, 유형진, 김행숙, 신해옥, 이제니, 김이듬, 허수경, 진은영 등의 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³²

본격적인 여성시문학사는 아직 쓰이지 않았지만 1996년에 출간된 김해성의 『한국현대여류시사』는 검토를 요한다. ‘여류시’라는 시대착오적인 용어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이 책에서는 고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는 여성 시인의 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여류시’라는 이름으로 여성시의 출현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김명순, 나혜석, 김일엽이 등장하는 1920년대 시문학부터이지만 그보다 앞선 시기에서도 ‘여성해방사상과 기독교의 영향’³³을 다루거나 이화여고 교가를 다루는 부분³⁴은 새로운 여성시문학사 서술에서도 참조할 만하다. 다만, 기존 시문학사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 속에서 여성시의 자리를 마련하려는 시도만으로는 온전한 의미의 여성시문학사가 서술되기 어렵다는 것이 이 논문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김해성의 『한국현대여류시사』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문학사에서 언급되지 않은 여성 시인들도 문학사에 호명함으로써 여성시문학사를 위한 자료적 가치는 충분히 지닌다고 판단된다.

29 위의 책, 6쪽.

30 위의 책, 405-408쪽.

31 위의 책, 424-430쪽.

32 위의 책, 451-504쪽.

33 김해성, 『한국현대여류시사』, 대광문화사, 1996, 58-62쪽.

34 위의 책, 74쪽.

그 외에도 김현자·이은정의 논문 「한국현대여성문학사—시」에서는 여성시를 문학사의 자장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한 그동안의 연구성과들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작업이 요청된다는 문제의식 하에 한국현대여성시문학사를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1기를 1910년대~1945년까지로 시기 구분하여 여성시의 태동기이자 발아기로, 2기를 해방 후~1960년대까지로 구분해 여성시의 모색기로, 3기를 1970년대~1990년대로 나누어 여성시의 활발한 성장기로 파악하면서 주제와 표현기법을 중심으로 여성시사를 서술하고자 함을 밝히고 있다.³⁵ 다만 짧은 소논문에서 한국현대여성시사를 포괄해 다루려다 보니 개괄적인 서술에 그친 점은 다소 아쉽다. 여성시문학사로서의 서술 방법론을 구체화하거나 시기 구분의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으나 1910~1990년대에 이르는 한국 현대 여성시문학사를 개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앞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한국 현대시문학사의 경우, 한국문학사와는 달리 일관된 서술 방법론에 입각한 시문학사 서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에 출간된 시문학사들은 대부분 10년 단위의 편의적 시대 구분을 통해 시문학사를 기술하고 있는 실정이다. 10년 단위의 한국 근현대사를 토대로 그 시기의 시문학을 살펴보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시기에 돌올한 미학적 성취를 중시했다. 그 시기를 대표할 만한 시인이나 시작품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 두 가지의 기준을 적용해 온 셈이다. 달리 말하면 시문학사의 정전을 구축해 온 두 축을 민족문학과 문학의 자율성으로 범박하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창비’와 ‘문지’로 대별되는 문단 권력의 두 축과 맞닿아 있기도 했다.³⁶ 여성시는 이 두 가지 기준에 모두 미달한 것으로 오랫동안 주류 시문학사에서 배제되거나 주변으로 내몰려 온 셈이다. 여성시가 시문학사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시기는 1990년대가 유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는 2000년대에 들어서자마자 여성문학을 계도화했다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고 다시

35 김현자·이은정, 「한국현대여성문학사—시」, 『한국시학연구』 제5호, 한국시학회, 2001.10, 65-91쪽.

36 이 완강한 두 축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문학동네로 대표되는 상업성과 결합한 문학의 출현을 통해서였다.

‘여성’을 지우고 여성시문학사 서술의 문제의식을 희석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전 구성의 원리에 포획당하지 않는 여성시문학사 서술의 방법론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여성시문학사는 결국 남성 시문학사의 관점과 방법론에 다시 포획당할 것이다. 시문학사에서 여성 주체가 어떻게 성립되어 왔으며 여성적 글쓰기의 방식이 어떻게 형성, 변화되어 왔는지, 그것이 시대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 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존 시론의 틀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여성시를 읽고 문학사에 기입될 만한 가치 있는 작품을 판별하는 새로운 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³⁷

최근에 새롭게 주목되고 있는 교차성 페미니즘 이론에서는 “여성이 권력에 의해 정의된 자신의 현실을 거부할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과 함께 여성이 권력에 의해 정해진 현실에 저항하고 협상하고 생존하는 데 사용하는 전략들을 보다 세심하게 관찰할 것을 요청”³⁸하고 있다. “억압의 중층성과 교차성”을 강조하면서 “여성을 무력한 피해자로만 재현해버릴 위험을 피하”고 “행위주체성”³⁹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교차성 페미니즘의 관점은 한국 현대 여성 시문학사를 새롭게 서술하고자 하는 이 논문의 문제의식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성시에 나타난 행위주체성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때 여성시는 새롭게 읽힐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여성시문학사의 구축 또한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여성에게 작용하는 억압이 동일하거나 단순하지 않음을 인식하는 일도 중요하다 하고 있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관점을 섬세하게 고려할 때 식민지 시기 여성시의 주체와 해방 이후 시기 여성시의 주체, 중산층 여성시의 주체와 노동자 여성시의 주체, 지식인 여성시의 주체 등의 자리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37 이런 관점에서 젠더적 관점으로 서정을 말한다는 것에 대해 사유해 본 글로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이경수, 「서정과 젠더」, 『시에』 제13호, 2019.9, 36-50쪽.

38 한우리·김보명·나영·황주영, 『교차성×페미니즘』, 여이언, 2018, 47-48쪽.

39 위의 책, 48쪽. 행위주체성(agency)은 주디스 버틀러의 개념으로, “행위자(doer)를 선형적으로 가정하지 않고 행위를 통해서만 행위주체가 발생한다는 관점에서,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주체를 상정하지 않는 행위의 작동원인이나 매개성, 혹은 행위를 통해 구성된 비본질적 주체성 개념을 의미한다.”(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 8쪽.) ‘행위주체성’에 대한 버틀러의 견해는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 352-357쪽 참조.

글쓰기 주체로서 여성 시인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기술하는 일 또한 가능해질 것이다. 행위주체성에 주목할 때 동일한 여성 주체의 목소리에 대한 해석도 피해자로서의 재현을 넘어서 새롭게 읽힐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복수 문학사이자 대항 문학사로서의 여성시문학사의 관점, 행위주체성에 주목하는 여성시문학사의 관점을 고수하면서 다음 장에서는 여성시문학사의 서술 방법론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을 해 보고자 한다.

3 여성시문학사 서술 방법론: 정전 형성의 가치 척도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재검토

문학사가 국어 교과서와 함께 오랫동안 정전형성의 기제로 큰 영향력을 발휘해 왔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고규진에 따르면 문학사를 통해 정전을 형성하는 절차는 수신자의 달라진 가치평가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문학사 서술이라는 점에서 문제적이고, 오늘날과 같이 정전형성과 해석정전이 요동치는 시대에는 다른 발신자의 다양한 정보와 가치평가를 선호하는 수신자의 관심이나 욕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한 문제가 된다.⁴⁰ 우리의 경우에도 여성시인들이 자료정전에서 제외되고 여성의 ‘저자성’이 오랫동안 인정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여성 시인의 정전화를 가로막고 시문학사에서의 여성시인에 대한 배제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시문학사 서술 방법론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이 논문의 관점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로지 브라이도티의 견해를 빌려 ‘페미니즘 계보학’이 긴요함을 말한 김양선의 견해를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페미니즘 계보학은 여성 자신의 시각과 언어로 남성중심주의, 국가중심주의 질서에 한편으로는 포섭되고 한편으로는 저항하는 여성들의 지적 전통과 말하기, 글쓰기를 복원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이다.”⁴¹ 김양선은 여성문학사 서술은 이러한 페미니즘 계보학

40 고규진, 『정전의 해부』,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104쪽.

41 김양선, 「여성의 관점에서 본 근·현대문학사의 (재)구성」, 민족문학사연구소 엮음, 『새 민족문학사 강좌』 02, 창비, 2009, 510쪽.

을 실천하는 작업이라고 보면서 여성성과 여성적 글쓰기를 우리 현실에 맞게 재맥락화하자고 제안한다.⁴² 여성시문학사 서술방법론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 논문에서도 여성 자신의 시각과 언어로 남성중심주의, 국가중심주의 질서에 한편으로는 포섭되고 한편으로는 저항해 온 여성시인들의 글쓰기를 복원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여성의 저자성을 인정한 바탕 위에서 새로운 여성시문학사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읽어내는 방법론의 마련이 필요하다. 바로 여기서부터 새로운 여성시문학사의 서술은 시작될 것이다.

고규진은 정전을 형성해 온 가치 척도로 형식적·미적 척도, 내용의 척도, 연관적 척도, 영향과 관련된 척도를 들었는데,⁴³ 이 논문에서는 이 네 가지 척도를 여성시를 읽는 가치 척도로 전유해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재검토함으로써 여성시문학사 서술의 방법론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먼저 형식적·미적 척도는 문학텍스트의 형식적·구조적·언어적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문학적 언술을 다른 종류의 언술과 구분 짓게 하는 문학텍스트의 특질 및 고유성을 담보한다.⁴⁴ 고규진은 자기준거, 다의성, 개방성, 아름다움, 조화, 통일성 같은 텍스트의 형식적·미적 측면에서의 성취가 최고의 가치평가척도로 간주된다고 보았는데, 여성주의적 관점을 경유해서 이 척도를 다시 본다면 고전주의의 가치 기준인 아름다움, 조화, 통일성에는 균열이 가해진다. 완결성을 추구하는 형식적·미적 척도보다는 자기준거, 다의성, 개방성의 척도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좀 더 유용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형식적 완결성보다는 완결성을 해체하는 방식의 말하기와 글쓰기가 여성주의적 관점의 형식적·미적 척도에서는 좀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도 여성시를 읽는 방법론의 개발과 시론의 다시 쓰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여성시를 읽는 형식적·미적 척도를 마련하는 일도 결국엔 이러한 문제의식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시를 읽는 형식적·미적 척도를 새롭게 구축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시문학사에서 높이 평가받아온 작품들이 여성시문학사에서도 비슷한 평가를

42 위와 같음.

43 고규진, 앞의 책, 304-318쪽.

44 위의 책, 306쪽.

받는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가령 고정희의 여성적 글쓰기의 다채로운 실험은 이전의 시를 읽는 형식적·미적 가치 척도만으로는 온전히 파악될 수 없을 것이다. 고정희 시에 대한 연구가 꽤 많이 축적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고정희 시에 대해서는 여성주의 시를 본격적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미학적으로는 결합이 있는 시라는 편견이 작용하고 있다. 오랫동안 우리가 학습해 온 형식적·미적 척도를 기준으로 두고 고정희 시를 평가한다면 이러한 판단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고정희 시의 미학적 완성도를 의심해 왔던 우리의 가치 기준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는 관점의 전환도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근본적인 척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여성시문학사의 서술은 여전히 요원한 일이 될지도 모른다.⁴⁵

내용적 척도는 문학텍스트의 내용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척도이다. 시 텍스트에서 다루는 내용에 사실상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 범위는 매우 클 것이다. 개별 텍스트의 내용에서 찾고자 하는 가치가 구체적일수록 내용을 평가하는 가치 척도의 수가 많아질 거라고 고규진은 보았다.⁴⁶ 시의 내용적 척도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에 따라 내용적 척도가 확장되거나 변화해 온 것도 사실이다. 시대 이념의 변화에 따라,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이 변화함에 따라 시가 추구하는 내용적 척도도 당연히 달라져 왔다. 특히 이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여성시의 내용적 척도로는 최근의 변화된 젠더 감수성이 작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근대—민족문학에서 내용을 평가하는 가치 척도로 민족주의나 현실비판의식이 중요하게 작용하였고, 일제강점기 문학을 대상으로 해서는 민족의식이나 저항성이 중요한 내용적 척도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여성시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나 여성주체에 대한 인식, 달라진 젠더 감수성에 기반한 성평등 의식이 중요한 내용적 척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교차성 페미니즘의 관점을 수용한다면 같은 여성이어도 어떤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위치에 놓이느냐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것이므로 내용적 척도를 적용할 때에는

45 젠더를 수행성(performativity)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주디스 버틀러의 견해나 젠더적 관점에서 독자, 저자, 플롯, 미학적 가치 등을 어떻게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지 미학적으로 접근한 리타 펠스키의 견해를 적극 참조할 수 있겠다.

46 위의 책, 308쪽.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인다. 1970~80년대 여성 노동자 시인 중 하나였던 최명자의 시에 대해서 당대에는 버스안내원으로서 경험한 개인적 감정을 분출했다거나 노동자의 당파성에 대한 인식을 결여한 채 개인적 경험의 한계에 빠졌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런데 달라진 내용적 척도에 의해 최명자의 시는 여성 노동자의 경험에 충실한 시이자 감정노동에 대한 선구적 인식을 보여주는 시로, 더 나아가 여성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라는 교차성 페미니즘의 인식을 선구적으로 보여준 시로 재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최명자의 시는 시대인식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내용적 척도에 의해 여성시에 대한 가치 평가가 변화한 하나의 예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연관적 척도는 일반적으로 자연언어와 문학전통 그리고 사회적 현실과의 연관관계를 통해서 문학텍스트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할 때 이용되는 기준을 가리킨다.⁴⁷ 고규진은 연관적 척도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이탈이나 규범과의 단절, 독창성, 개혁, 최신성, 진보와 해방, 적합성, 리얼리즘이나 현실근접성, 시대적합성과 대표성 등을 들고 있다.⁴⁸ 여성시의 경우 주류 시문학사에 등재되어 평가된 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범적 언어에서 이탈하고 언어규범이나 문학적 규범, 사회적 규범 등과 단절하는 성향을 지녀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여성시가 다 그런 성향을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모운숙, 노천명처럼 기성의 언어규범이나 문학적 규범, 사회적 규범을 수호하거나 수용하는 쪽에 가까운 시보다 그로부터 이탈하고 단절하려는 성향이 더 강한 김명순 시인의 작품 같은 여성시를 여성시문학사에서 더 의미 있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연관적 척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학전통과의 연관을 고려할 때 독창성과 개혁의 성향을 지니는 여성시를 좀 더 여성시문학사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신성은 익히 알려져 있어서 매력을 상실한 문학텍스트의 내용이나 형식을 진부한 것으로 평가하고, 시류나 유행에 부합하는 새로운 것을 궁

47 위의 책, 310쪽.

48 위와 같음.

정적으로 평가할 때 필요한 척도”⁴⁹이므로 전통 수호보다는 새로운 유행을 더 선호하는 기질을 좀 더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류 시문학사에 편승하기보다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데 좀 더 발 빨랐던 1990년대의 여성시를 평가할 때 활용하기에 적절한 척도가 아닐까 싶다. 현존하는 사회의 상태를 넘어서려는 의지가 반영된 척도인 진보와 해방은 1세대 여성시인인 김명순, 나혜석, 김일엽의 시나 고정희의 시를 여성시문학사에서 다시 평가할 때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리얼리즘, 현실근접성 같은 척도를 여성시를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현실을 얼마나 근접한 묘사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리얼리티를 확보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가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서도 여성으로서의 현실에 대한 자기인식이 바탕이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령 최승자의 시는 버림받은 여성으로서의 감정에 충실한 시를 통해 1980년대라는 시대 현실의 암담함을 그려내고 더 나아가 부정 정신을 통해 시대 현실을 해체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연관적 척도에 의해 새롭게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시대적합성과 대표성은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 대한 관계에서 평가하는 척도인데, 여성시의 가치를 평가할 때 시대적합성을 지니는지, 대표성을 띠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시대적합성은 당대적 의미뿐만 아니라 문학사가 쓰이는 오늘의 시대와 적합한지도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가치 척도로 활용할 때 당대적 가치와 현재적 가치를 모두 지니는 여성시가 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반면 상대적으로 당대적 가치는 있었으나 현재적 가치는 축소된 경우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모운숙, 노천명 등의 시를 여성시문학사에서 평가하고 정위할 때 필요한 가치 척도라고 볼 수 있겠다.

영향과 관련된 척도는 고규진에 따르면 “문학텍스트가 독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가치척도로 삼는 것”⁵⁰을 가리킨다. 앞서 세 가지 척도, 형식적·미적 척도, 내용적 척도, 연관적 척도가 모두 문학작품에 대한 가치평가의 척도라면, 영향과 관련된 척도는 독자와의 관계를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

49 위와 같음.

50 위의 책, 313쪽.

서 문예학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라 볼 수 있다. 고규진은 영향과 관련된 척도를 인식론적 가치척도, 행동, 윤리, 실생활과 관련된 실제적인 척도, 감정적·정서적 척도, 경제적인 가치척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데⁵¹ 이를 여성시에 적용해 재검토해 볼 수 있다. 여성시에 나타난 여성주의적 인식이 실질적으로 독자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독자의 행동이나 윤리, 실생활에 변화를 촉구하며, 감정이나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문학시장에서 독자를 확충하는 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여성시의 가치를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연주, 박서원 등의 시가 최근의 독자들에게 서발턴의 말하기로 다시 평가받는 점이라든가 최영미의 시가 2010년대 후반의 시단에서 ‘문단 내 성폭력’ 폭로를 통해 독자들에게 미친 파장, 2010년대 시단에서 김민정 시가 보여준 그로테스크한 웃음을 동반한 유쾌한 폭로가 여성의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증언하며 독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⁵² 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 가지 가치척도를 여성시에 적용해 볼 때 그것이 역사적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좀 더 분명히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와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척도에 따라 정전수정과 재정전이 수행되듯이, 여성시문학사에 새롭게 기입되거나 평가되는 여성시인과 시작품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가치척도의 변화에 따라 당연히 변화할 것이다.

그 밖에도 여성시인들의 장르 인식이나 매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검토와 반영이 가치척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근대—민족—남성 중심의 문학사 서술과 동일한 기준으로 남성의 자리만 여성으로 대체하는 형식으로는 새로운 여성시문학사의 서술이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여성 시인들이 글쓰기 주체로 스스로를 정위하면서 글쓰기를 시작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향한, 그리고 무엇을 위한 발화였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1세대 여성 시인들의 경우 신여성으로서의 자의식이 중요하게 관여했을 텐데, 이후 2세대, 3세대 여성 시인들의 경우, 글쓰기 주체로서의 자신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성

51 위의 책, 313-316쪽.

52 이경수는 “2017년 헐리웃에서 시작되어 한국 사회에서 폭발한 미투 운동을 예언적으로 성취했다는 점에서 김민정 시가 2000년대 시사에서 갖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경수, 「탈경계 시대 현대시의 모색과 도전」, 이승하 외, 앞의 책, 465쪽.

시인들은 어떻게 저자성을 획득해 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여성시문학사에서 어떻게 의미화할 것인지의 문제 또한 검토해야 할 것이다.

4 시대 구분의 문제

문학사 서술에서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시대 구분의 문제이다. 기존의 문학사에서 통용되어 오던 시대 구분과는 다른 여성시문학사에 걸맞은 시대 구분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시대 구분을 하는 것으로부터 여성시문학사 서술은 시작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관행적으로 따라온 10년 단위 문학사 서술을 지양하고자 한다. 젠더시문학사 서술을 향해 나아가는 과도기로서의 여성시문학사의 경우, 여성시인들의 시를 우선적인 서술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앞서 3장에서 살펴본 네 가지 척도를 기준으로 유의미한 시대 구분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대 구분의 기준은 그 동안의 문학사에서 주목받지 못한 여성 시인과 여성시작품의 발굴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 시대 구분의 경계를 고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유동적인 것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1기(1910~1920년대)는 ‘근대적 여성 주체의 선언과 좌절’의 시기로 명명하고자 한다. 앞서 여성시문학사 서술의 방법론으로 검토해 본 형식적·미적 척도, 내용의 척도, 연관적 척도, 영향과 관련된 척도를 고려해 보면, 먼저 형식적·미적 척도로 자기 고백적 글쓰기의 활용과 그것이 일으키는 효과로서 고전주의적 완결성에 균열을 일으킨 점을 들 수 있다. 고전주의의 미적 완결성과는 달리 자기 고백적 언술을 활용해 기성관념과 제도에 균열을 일으키는 시가 이 시기에 발견된다. 흔히 1세대 여성 시인으로 일컬어져 온 김명순, 나혜석, 김일엽을 이 시기를 대표하는 여성 시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적 척도로는 이전까지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새로운 인식과 신여성의 각성이 이루어진 시기라는 점이 고려될 수 있겠다. 김명순, 나혜석, 김일엽의 시에는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나 여성주체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드러나고,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부당하게 핍박받고 소외당한 여성 시인들이 느낀 분노와 비판적 인식이 작품 속에 주제로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다. 교차성 페미니즘의 관점을 수용한다면 같은 1세대 여성 시인 안에서도 결혼이라는 제도에 한 번도

편입되지 못한 데다 신분상의 차별까지 안고 있었던 김명순의 시가 유독 부당한 평가를 받았음을 특기할 수 있겠다. 연관적 척도는 자연언어와 문학전통, 사회적 현실 등과의 연관관계를 통해서 문학텍스트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할 때 이용되는 기준인데, 1기의 여성 시인들의 경우에는 사회에서 통용되거나 제도적으로 통용되는 언어 규범이나 문학적 규범에서 이탈하며 당시 언어 규범과 문학 규범을 전복하고자 시도한 시들의 가치에 주목해 볼 수 있겠다. 가부장제를 비판하며 여성주의적 관점을 드러내는 시들의 경우 사회적 규범에 균열을 내거나 사회적 규범에 대한 전복을 시도한 시들이 여성시문학사에서 의미 있는 가치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향과 관련된 척도로는 『신여자』 같은 여성 매체를 만들어 적극 활용하며 여성주의 담론 생산에 기여한 김일엽의 경우를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당시 신여성들이 여성 잡지의 필자로 적극 활동하며 여성 독자들과 교감해 왔음을 의미 있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시집으로 묶이지 않은 시 작품이나 독자 투고 작품, 시인들이 쓴 다른 장르의 글도 참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기(1930~1960년대)는 ‘국가주의 페미니즘과 여성성의 축소’ 시기로 구분해 좀 넓은 시기를 포괄하고자 한다. 그 동안 1930년대와 1950~60년대의 여성 시인은 문학사에서 구별되어 논의되어 왔으나 이 논문에서 구상하는 여성시문학사에서는 1930년대와 1950~60년대 여성 시인들 간의 차이가 1기 여성 시인들과 이들 간의 차이보다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기 여성 시인들의 성취와 한계를 목도하고 그들과는 다른 길을 걷고자 한 2기 여성 시인들의 지향은 앞 시기의 여성 시인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 논문에서 구상하는 여성시문학사에서는 국가주의 페미니즘의 전략과 한계를 보여주며 결과적으로 여성성의 의미를 축소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2기 여성시의 특징을 포착했다. 1930년대를 대표하는 모윤숙, 노천명을 비롯해 1950년대의 시인으로 분류되어 온 김남조, 홍윤숙, 1960년대에 등단해 1970년대에 활발히 활동한 허영자, 유안진, 신달자, 문정희 등의 시인을 2기의 시인으로 함께 묶어 다루고자 했다. 허영자, 유안진, 신달자, 문정희 시인의 경우, 1960년대에 등단했지만 사실상 그 활동 시기가 1970년대 이후까지도 걸쳐 있는 시인이라 2기의 시인으로 함께 묶어 다루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 논문에서 구상하고 있는 여성시

문학사에서는, 여성주의적 관점을 경유해 재검토한 형식적·미적 척도, 내용의 척도, 연관적 척도, 영향과 관련된 척도라는 네 가지 척도를 적용한 서술 방법론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시인들의 시가 모운숙, 노천명, 김남조, 홍운숙 같은 앞 시기 시인들과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아 2기에 포괄해서 다루고자 한다. 국가주의 페미니즘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2기 여성 시인들의 시적 선택은 1기 여성 시인들이 문학사에서 어떻게 소외되고 배제되었는지를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이해되는 것이기도 했다. 모성과 생명을 추구하며 서정시로 시단의 주류에 편입하고자 한 2기 시인들의 시적 전략은 1기 여성시인들의 도전과 실패를 간접 체험하며 나름대로 체득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주의 페미니즘의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들의 시에서는 여성성과 모성성이 부각되는데 이때의 여성성은 전복의 성격을 지니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협의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시기 여성시의 형식적·미적 척도로 두드러진 것은 기구의 어조와 서정성의 추구라고 할 수 있는데, 1기 여성 시인들의 시에 나타나던 전복성은 사라지고 당시 시문학사의 주류를 이루던 시의 대표적 속성 중 하나인 서정성을 시적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취하는 시인들이 2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3기(1970~80년대)는 ‘글쓰기 주체로서 여성 정체성의 확립과 여성주의 미학의 발견’ 시기로 1970년대에 시작 활동을 시작한 시인들 중에서 앞 시기 여성 시인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여성주의적 관점을 드러내는 시인들을 여기에 포함해 다루고자 했다. 이후 여성 시인들의 시는 하나의 성격으로 대표되지 않는 다양성을 두드러진 특징으로 지니게 되는데, 그러한 변화에 기폭제가 된 시인들이 이 시기 여성 시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강은교, 고정희, 최명자, 정명자, 최승자, 김혜순, 김승희, 허수경 등의 시인을 3기 여성 시인으로 함께 다루고자 한다. 강은교 시인은 1968년에 『사상계』에 「순례의 잠」이 당선되며 등단했지만 『70년대』 동인지를 내고 ‘70년대 동인’으로 활동하며 1970년대 시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으며 1971년에 첫 시집 『허무집』을 출간하였다. 그에 비해 고정희는 1975년 『현대시학』에 「연가」 등의 작품을 발표하며 시작 활동을 시작해 첫 시집 『누가 홀로 술틀을 밟고 있는가』를 1979년에 상재한 시인으로 사실상 주된 활동 시기는 1980년대라고 보아야 한다. 최명자, 정명자의 경우는 각각 1985년에 『우리들 소원』, 『동지여 가슴 맞대고』라는 단 한 권의 시집을 출간한 여성 노동자 시

인이다. 시집이 출간된 것은 1980년대 중반이지만 이들이 주로 다루고 있는 노동 현실은 1970년대의 것으로, 최명자 시인의 경우에는 버스 안내원으로서의 감정 노동 경험을 선구적으로 그렸다는 점에서, 정명자 시인의 경우에는 ‘동일방직 노조 탄압 사건(이른바 ‘똥물 투척 사건’)'을 생생하게 그렸다는 점에서 여성시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그동안의 시문학사에서 거의 주목하지 않았던 시인으로,⁵³ 1980년대 노동시 담론에서 최명자와 정명자의 시가 어떻게 배제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여성시문학사에서 재평가하는 것도 여성시문학사가 담당해야 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최승자, 김혜순, 김승희, 허수경의 시는 이미 1980년대의 시문학사에서 주목받아 왔지만 여성시문학사에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호명함으로써 형식적·미적 척도, 내용의 척도, 연관적 척도, 영향과 관련된 척도라는 네 가지 척도를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검토한 서술 방법론을 토대로 이들이 여성시문학사에서 쟁취한 성과와 한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의미화하고자 했다. 사실상 이들의 시세계는 최근까지도 대부분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의 본령은 1980년대 시에 놓인다고 보아 3기의 여성시로 다루고자 했다.⁵⁴

4기(1990년대)는 ‘여성적 글쓰기의 실험과 도전’ 시기로 1990년대의 여성시를 여기서 다루고자 한다. 기존의 한국 현대 시문학사에서 거의 예외적으로 여

53 최명자와 정명자의 시를 다룬 유일한 논문으로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박지영, 「1970~80년대 여성노동자 시에 나타난 젠더/섹슈얼리티 정치학」, 『한국시학연구』 제 53호, 한국시학회, 2018.2, 39-84쪽.

54 이렇게 볼 때 허수경의 시를 3기로 분류하는 것에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허수경의 첫 시집에서 1980년대 국문학도 여대생으로서의 자의식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1980년대 여성시문학사에서 글쓰기 여성 주체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보아 여기에서 다루고자 했으나, 사실상 1990년대~2010년대에 이르는 허수경 시의 성취 또한 ‘반전 평화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어서 5기의 여성시를 논할 때 의미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 시인이기는 하다. 오랜 시기에 걸쳐 시작 활동을 한 시인들의 경우에 시문학사의 시기 구분에서 어디에 귀속시킬 것인지의 문제가 늘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데, 허수경의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시인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1980년대 여성시인으로, 그리고 이후까지 반전 평화시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여성시의 주제와 문제의식을 발견한 시인으로 2000년대 여성시문학사에서 다시 언급되어야 하는 시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과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성 시인들의 시에 대해 중요하게 다룬 시기가 1990년대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비교적 최근의 시문학사, 그 중에서도 대체로 10년 단위의 시문학사를 여러 명의 필자가 나누어 쓴 유형의 시문학사에서 1990년대 시가 포함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겠다. 1990년대는 김정란, 노혜경, 박서원, 이연주, 최정례, 이수명, 신현립, 김언희, 나희덕, 조용미, 김선우 등 다양한 성향의 역량 있는 여성 시인들이 쏟아져 나온 시기였다. 시뿐만 아니라 소설 분야에서도 여성문학이 주류를 이루었던 시기이기도 했고 문학사의 주요 담론으로도 욕망의 문제, 몸과 생명, 생태주의, 여성주의, 탈근대 담론 등이 부각되면서 여성시의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했다. 정체되지 않은 분열된 목소리의 출현, 신체 절단의 이미지와 상상력, 소비되는 여성의 몸에 대한 인식과 생태주의적 인식, 여성주의에 포괄되지 않는 새로운 예술의 실험 등 1990년대 여성시의 특징은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보여준다. 이전의 시는 물론 이전의 여성시와도 치열하게 싸우며 여성의 저자성을 획득하고자 한 것이 이 시기 여성시였다. 1990년대 시문학사는 이수명이 ‘공습의 시대’⁵⁵라고 명명할 만한 특징을 보여준 시대이기도 했는데 여성시의 경우에도 넓은 스펙트럼이나 실험과 도전 정신이라는 측면에서도 ‘공습의 시대’에 걸맞은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5기(2000~2010년대)는 ‘젠더적 인식의 확산과 다양한 목소리의 출현’ 시기로 2000년대와 2010년대의 여성시를 여기서 다루고자 한다. 1990년대가 여성시의 시대로 불릴 수 있을 만큼 여성주의를 표방한 여성시가 많이 창작되었고 다양한 여성 시인이 출현했던 시대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런 1990년대를 지나자 여성주의적 지향과 목소리를 분명히 드러냈던 1990년대의 여성시가 오히려 여성시를 계도화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2000년대와 2010년대에 이르면 사실상 여성시가 우리 시문학사의 현재를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성시가 주류가 되는 시대에 접어든다. 그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주류가 된 여성 시인들은 더 이상 여성 시인으로 불리기를 원치 않게 되었다. 실제로는 젠더적 인식이 확산되고 더 섬세한 여성 시인의 감성이 다양한 목소리를 얻게 되었지만 이들은 ‘여성’ 시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정위하는

55 이수명, 『공습의 시대』, 문학동네, 2016, 13쪽.

데 별 관심이 없었다. 이원⁵⁶, 김행숙, 진은영, 김민정, 이영주, 김이듬, 진수미, 유희진, 하재연, 신해옥, 이근화, 이제니, 강성은, 박소란, 안희연, 안미옥, 임솔아, 문보영, 이소호 등의 시인을 여기서 함께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 안에서도 차이가 발견되는데 김민정, 김이듬, 이소호처럼 여성주의적 목소리를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색채를 부여한 시인들도 있고, 김행숙, 진은영, 유희진, 하재연, 신해옥, 이근화, 강성은, 안희연, 안미옥처럼 여성 시인의 체험과 감수성을 섬세하게 전격적으로 드러내는 시인들도 있다. 특히 2016년 #문단_내_성폭력 해시대그 운동 이후 이 시인들의 목소리에도 변화와 균열이 발견된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이 논문에서는 젠더시문학사 서술을 위한 과도기의 작업으로서 여성시문학사의 서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여성시문학사 서술에서 요구되는 관점을 살펴본 후 여성시문학사의 서술 방법론과 그에 따른 여성시문학사의 시대 구분을 제안해 보았다.

여성시문학사 서술에서 요구되는 관점으로 교차성 페미니즘의 관점을 전유해 여성시에 나타난 ‘행위주체성’을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여성시를 새롭게 읽을 수 있고 새로운 여성시문학사의 구축 또한 가능하다고 보았다. 복수 문학사 이자 대항 문학사로서의 여성시문학사의 관점, 행위주체성에 주목하는 여성시문학사의 관점이 여성시문학사 서술에서 요구되는 관점이라고 보았다.

여성 시인들의 글쓰기를 복원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여성의 저자성을 인정한 바탕 위에서 새로운 여성시문학사를 구축하려는 문제의식 아래, 이 논문에서는 정전 형성의 가치 척도로 논의되어 온 형식적·미적 척도, 내용의 척도, 연관적 척도, 영향과 관련된 척도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재검토함으로써 여성시문학사 서술 방법론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56 이원 시인의 경우에도 1992년에 등단해 1996년에 첫 시집 『그들이 지구를 지배했을 때』를 발간했지만 그의 시가 한국 현대 시단에서 의미 있게 호출되는 시기가 2000년대라는 판단에 따라 5기의 시인으로 분류하였다.

네 가지 척도를 활용한 여성시문학사 서술방법론에 따라 여성시문학사의 시기를 1기(1910~1920년대) ‘근대적 여성 주체의 선언과 좌절’ 시기, 2기(1930~1960년대) ‘국가주의 페미니즘과 여성성의 축소’ 시기, 3기(1970~80년대) ‘글쓰기 주체로서 여성 정체성의 확립과 여성주의 미학의 발견’ 시기, 4기(1990년대) ‘여성적 글쓰기의 실험과 도전’ 시기, 5기(2000~2010년대) ‘젠더적 인식의 확산과 다양한 목소리의 출현’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논문에서 제기한 여성시문학사의 서술 방법론과 시대 구분에 따라 여성이 논문에서 제기한 여성시문학사의 서술 방법론과 시대 구분에 따라 여성시문학사를 서술하는 일이 추후의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고규진, 『정전의 해부』,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104쪽, 304-318쪽.
- 고 은, 「허무의 주」, 강은교, 『허무집』, 70년대동인회, 1971, 118쪽.
- 김용직, 『한국근대시사』 상, 학연사, 1994, 1-547쪽.
- _____, 『한국근대시사』 하, 학연사, 1994, 1-488쪽.
- _____, 『한국현대시사』 1, 한국문연, 1996, 34쪽, 59쪽.
- _____, 『한국현대시사』 2, 한국문연, 1996, 266-299쪽.
-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8-11쪽.
- 김해성, 『한국현대여류시사』, 대광문화사, 1996, 3-4쪽, 58-62쪽, 74쪽.
- 오세영 외, 『한국 현대시사』, 민음사, 2007, 1-676쪽.
- 유종호, 『한국근대시사』, 민음사, 2011, 5쪽, 231쪽, 257쪽, 269쪽.
- 이수명, 『공습의 시대』, 문학동네, 2016. 13쪽.
- 이승하 외, 『한국 현대시문학사』(개정증보판), 소명출판, 2019, 6쪽, 405-408쪽, 434-430쪽, 451-504쪽.
- 정한모, 『한국현대시문학사』, 일지사, 1974, 1-414쪽.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5(4판), 지식산업사, 2005, 9쪽.
- 한우리·김보명·나영·황주영, 『교차성×페미니즘』, 여이연, 2018, 47-48쪽.

리타 펠스키, 이은경 역, 『페미니즘 이후의 문학』, 여이연, 2010, 39쪽.
산드라 길버트·수전 구바, 박오복 역, 『다락방의 미친 여자』, 이후, 2009, 893-896쪽.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 8쪽, 352-357쪽.

논문

김양선, 「여성의 관점에서 본 근·현대문학사의 (재)구성」, 『새민족문학사강좌』 02, 창비, 2009, 495-510쪽.
김현자·이은정, 「한국현대여성문학사-시」, 『한국시학연구』 제5호, 한국시학회, 2001.10, 65-91쪽.
박지영, 「1970~80년대 여성노동자 시에 나타난 젠더/섹슈얼리티 정치학」, 『한국시학연구』 제53호, 한국시학회, 2018.2, 39-84쪽.
소영현, 「문학사의 젠더」, 민족문학사연구소 편, 『문학사를 다시 생각한다』, 소명출판, 2018, 185-218쪽.
이경수, 「서정과 젠더-젠더적 관점에서 서정을 말한다는 것에 대하여」, 『시에』 제13호, 2019.9, 36-50쪽.
이경하, 「여성문학사 서술의 필요성」, 민족문학사연구소 편, 『문학사를 다시 생각한다』, 소명출판, 2018, 219-243쪽.
정영자, 「1960년대 한국여성시문학사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12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3.6, 33-69쪽.
_____, 「1970년대 한국여성시문학사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17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5.8, 189-220쪽.

Abstract

A Study on Description Methodology for the Literary History of Women's Poetry

Lee, Kyung-soo

Conceived by the problematic consciousness that the description of the literary history of women's poetry was needed as a transitional work for the description of the literary

history of gender poetry,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the perspectives required for the description of the literary history of women's poetry, propose methodologies for description, and look into the issue of dividing periods in the literary history of women's poetry. As for the perspectives required for the description of the literary history of women's poetry, the study raised the possibilities of reading women's poetry anew and writing new literary history of women's poetry by interpreting actively the "agency" in women's poetry based on the perspective of intersectional feminism. This study reviewed again the formal and aesthetic criteria, content criteria, connective criteria, and influence-related criteria discussed as the criteria of value in the formation of canons from the feminist perspective and proposed their utilization as the description methodology in the literary history of women's poetry. Based on the description methodology for the literary history of women's poetry according to the four types of criteria, the literary history of women's poetry was divided into five periods: Period 1(1910s~1920s) when modern women subjects made a declaration and experienced a frustration, Period 2(1930s~1960s) when the femininity vested in the nationalism feminism was reduced, Period 3(1970s~1980s) when women's identity was established as subjects of writing with feminist aesthetics discovered, Period 4(1990s) when there were experiments and challenges with feminine writing, and Period 5(2000s~2010s) when the gender awareness spread with the emergence of various voices.

Key words: Literary history of women's poetry, literary history of gender poetry, agency, description perspective, description methodology, formation of a canon, criterion of value, division of periods

본 논문은 2019년 11월 15일에 접수되어 2019년 11월 1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9년 12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